

-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-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

주제: 하나님나라 제목 : 우리의 기도제목 성경: 느헤미야
2장 1-8절

1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

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

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

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

5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

6 그 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

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

8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삼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(느2:1-8)

느헤미야에게는 고민이 있었다. 그에게는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.

스스로는 이제 수산궁의 관리가 되었지만, 조국 땅에서 찾아온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었고, 그 성문은 무너졌다는 것이다.

느헤미야는 여기서 깊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.

-그는 먼저 회개하고, 자신들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커서 나라를 망케 한 것을 인정하였다.

-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그 모욕과 수치당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였다.

-이제 내가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.

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나,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.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다.

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,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것인가?

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총리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게 하셨다.

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

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자

-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.

-오늘 우리가 이 사명에 무관심하면 세계는 더욱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.

-세상에는 죄에 빠진 사람도 많고, 개인적인 복락에 빠진 사람도 많고, 평범하고 선한 인생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. 그러나 사명에 빠진 사람도 필요하다. 한국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아야 한다.

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

-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

-한국교회에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.

-물론 지도자감은 많다. 바다의 고기떼와 같다. 그러나 하나님ی 형통케 하는 자가 필요하다.

-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자가 일어나야 한다. 우리는 사사와도 같은 하나님이 일으켜세우는 자가 필요하다.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.

-가정의 회복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.

-결국 우리는 한 세대를 감당할 뿐이다.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음세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요 훈련이요 투자가 된다.

-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나, 자기의 권리나, 자기의 행복 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. 우리의 관심을 그곳에 두자. 우리의 행복은 천국에 있다. 우리의 행복은 사명감당에 있다.

<찬양예배>

주제: 제목: 회복하는 교회 말씀: 마태복음 21장28-46절

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아
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

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

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
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

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
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
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

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
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
다

33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
르고 거기에 즈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
에 갔더니

34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
보내니

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
쳤거늘

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
라

37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
니

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
유산을 차지하자 하고

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

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

41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

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

4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록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

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

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

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 씀하심인 줄 알고

46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 있더라 (마21:28-46)

-얼마든지 교회도 쇠퇴할 수 있다. 모든 교회가 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. 내가 사명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.

-바리새인들이 많은 교회는 사명감당하지 못한다. 세월 속에 묻히고 만다.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일인가?

-회복하는 교회는 둘째 아들교회.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다. 그러나 회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.

-실수하지 않고, 회개하지 않고, 회복하지도 않는다.

-회복하는 교회는 포도원을 차지하는 자들이 아니라, 제때에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필요하다.

-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. 주인은 하나님. 우리는 청지기. 우리는 하나님께 세를 내야 한다. 헌신하며 섬기며 다른 농부들과 하나님의 아들에게(예수님) 순종해야 한다.

-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. 돌 밑에 깔리는 자가 되면 안된다.

